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5대 권역을 중심으로 -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배 인 경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5대 권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9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배 인 경

배인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위 원 장 이 수 영 (인)

부위원장 고 길 곤 (인)

위 원 금 현 섭 (인)

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시되던 과거와 비교해 삶의 만족도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시되고 있다. 현 정부는 물론 역대정부의 문화정책 비전과 문화복지정책의 목표 역시도 국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확대와 복지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문화예술의 향유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특정집단이나 특정시기, 특정지역에 한정시켜 진행한 설문조사나 문헌조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정된 시·공간적 범위를 다룬 질적연구에서 벗어나 소득과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변수에 포함시키고, 문화예술을 경제학의 기본구성인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으로 10년 이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시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변수별 영향력이 지역별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나아가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파악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로 삶의 질, 문화예술 복지에 대한 이론과 문화예술복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후 문화예술 향유(수요)를 나타내는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을 나타내는 요소로 문화공간 공연장,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예술 지원현황을 채택해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5대권역별로 패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서울시 전체에서 문화예술 향유(수요)는 지역주민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 공급에서는 문화공간 공연장,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문화공간 지

역문화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도심권의 경우 오히려 (-)의 영향을 끼쳤으나, 문화예술 지원현황에서는 동북권과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의 영향을 끼쳐 문화예술 지원현황이 클수록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문화적 향유(수요)에서 기인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각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급의 지역적 요인을 반영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구축 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지역공간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현장의 문화예술전문가들과 협업해 문화수요계층의 참여를 능동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주요어 : 문화예술 삶의질 문화복지정책 문화정책 서울시5대권역
학 번 : 2015-2435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6
제 1 절 이론적 논의	6
1. 삶의 질의 개념	6
2. 문화예술 복지의 개념	7
3. 문화(예술)복지 정책의 변화	9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6
1. 문화예술과 삶의 질	16
2. 문화(예술)복지 정책과 삶의 질	1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 3 장 연구설계	22
제 1 절 연구가설 도출	22
제 2 절 자료 및 분석대상	23
제 3 절 변수 및 분석방법	25
1. 종속변수: 삶의 질	25
2. 독립변수: 문화예술 수요와 공급	26
3. 통제변수: 사회경제학적 변수	28
4. 분석방법	29

제 4 장 분석결과	30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30
1. 자료설명	30
2. 종속변수(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결과	32
제 2 절 패널분석	34
1. 지역별 분석결과	34
(1) 서울시 전체 분석결과	34
(2) 도심권 분석결과	35
(3) 동북권 분석결과	37
(4) 서북권 분석결과	38
(5) 동남권 분석결과	39
(6) 서남권 분석결과	40
2. 지역더미 분석결과	41
제 3 절 분석결과 종합	42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45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47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0
참고문헌	51
Abstract	58

표 목 차

[표1] 정부별 문화(예술)복지 정책	12
[표2] 변수	24
[표3]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구성내역	27
[표4] 지역별 기술통계량	31
[표5] 상관관계	33
[표6] Hausman 검정통계량	34
[표7] 서울시 전체	35
[표8] 도심권	36
[표9] 동북권	37
[표10] 서북권	38
[표11] 동남권	39
[표12] 서남권	40
[표13] 더미변수 모형 (기준=동북권)	41
[표14] 분석결과 종합	43
[표15] 가설의 지지여부	44

그 림 목 차

[그림1] 연구모형	23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정보통신산업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1954년 67달러에서 2016년 27,195달러로 약 400배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외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30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해 내적으로는 아직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국민행복을 논하기 시작하며 “문화는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행복의 원천”이라고 전제한 뒤, 문화예술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¹⁾

1) 2007년 문화관광부 장관 기자간담회 기조연설에서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당신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문화관광부의 정책 및 행정은 이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문화는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행복의 원천”이라고 전제한 뒤, “21세기에 들어와 디지털화·융합하는 환경과 함께 감성과 체험이 중시되는 문화기반경제 시대가 되면서, 문화는 또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 “당신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기자간담회,” 2007년 8월 31일, 서울 문화부 청사)

국민들의 삶도 과거에는 소득 향상을 위한 노동과 생산에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소비와 문화생활 위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이 불러온 삶의 질 향상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뛰어넘어 문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양혜원, 2012).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한 단어로 급 부상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옐로(YOLO)일 것이다. “인생은 단 한번 뿐(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주로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 음악 안에서 쓰이기 시작했다가 2011년 미국의 유명 래퍼 드레이크(Drake)의 노래에 쓰이면서 현 세대에서 나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경제적 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적 향유에서 기인한 만족도에 우선한다는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며 큰 반향을 일으켜 지난 2016년 9월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도 등록이 되었다.²⁾

비단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표한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관심집단의 삶의 만족도(66점)가 일반시민(62.7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심도, 감수성, 이해력, 향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집단 또는 개인별 차이의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문화(복지) 정책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 201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문화복지 인식과 수요조사』에 따르면 문화적 삶의 질이 높다는 응답은 14.2%, 보통은 59.5%, 낮음은 26.9%이고, 문화예술 향유가 많다는 응답은 14.2%, 보통은 36.3%, 적다는 49.5%로 나타났다. 즉, 문화향유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향유를 많이 하는 집단에서는 41.5%가 삶의 질이 높고, 불과 4.9%만이 삶의 질이 낮은 반면 문화예술 향유가 적은 집단에서는 5.3%만이 삶의 질이 높고, 40.8%가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관광연구

2) “YOLO 한 번뿐인 삶이니깐...현재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 『조선일보』 . 2016년 12월 27일.

3) 서울문화재단. (2017).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 271

원, 2011).

이를 반영하듯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지난 10 여 년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으로 편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5조 1,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41억 원 감액이 되긴 했으나, 문화예술 부문은 이 중 유일하게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사업을 첫 번째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다.⁴⁾

또한 저소득층의 국민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역시도 2018년부터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할 방침이라 발표했다.⁵⁾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문화로 행복한 삶’을 국정기조로 채택해 국민의 문화참여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문화 예술 진흥을 꾀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⁶⁾ 확대, 생활 속 문화 체감,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 집행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 부분의 정부지출도 6.1조원 규모로 2014년에 5.4조원에 비해 13.0%나 증가 12개

4) 정책브리핑: 2018년 문체부 예산 편성 현황 (2017).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 [2017년 11월 6일 접속].

< 2018년 문체부 예산 편성 현황 >

구 분	'17년 예산(본예산)		'18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비율
총 합계	56,971	100.0	51,730	100.0	△5,241	△9.2
문화예술	16,000	28.1	15,947	30.8	△53	△0.3
콘텐츠	7,430	13.0	6,989	13.5	△441	△5.9
관 광	15,538	27.3	14,027	27.1	△1,511	△9.7
체 육	15,021	26.4	11,576	22.4	△3,445	△22.9
기 타	2,981	5.2	3,191	6.2	210	7.0

5)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연 7만원으로” 『한국경제』. 2017년 9월 4일.

6) 2014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관람료로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 지출 부문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우 외, 2015).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 관련시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정부는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 과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차이를 주었는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소비)와 공급 차원으로 나누어 패널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해외 사례조사, 문헌고찰이나 설문조사에 머물렀지만 본 연구는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이용해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지역별로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

시 5대 권역 자료를 통합한(pooling) 패널자료를 이용해 패널분석으로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대리하는 시민행복지수로 통제변수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를 나타내는 지방세징수액 · 유소년부양비로 각각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를 향유(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문화예술 향유(수요):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문화예술 공급: 문화공간 공연장 수 ·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수 · 문화예술 지원현황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5대 권역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2 장은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로 삶의 질, 문화예술 복지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문화예술복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문화예술과 삶의 질, 문화예술복지 정책과 삶의 질로 나누어 검토한 후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 3 장은 연구설계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본 연구 자료와 분석대상에 대해 구술한다. 이후 변수 및 분석방법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 4 장은 분석결과로 먼저 자료의 기술통계분석에 대한 자료설명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결정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서울시 전체와 서울시 5대 권역, 지역더미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지역별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해 종합한다.

이후 제 5 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후,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이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삶의 질은 사회적 요건 및 제도와 사회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이 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 애정과 친밀도, 자유와 자율, 성장의 욕구 등 주관적, 심리적 요소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Shin · Johnson(1978)은 삶의 질을 개개인의 욕망과 욕구(personal characteristics)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소유하고 개개인이 활동에 스스로 참여해 활동하면서 느끼며(positive assessments of life situation) 비교하고 만족하는 것(favorable comparisons of life situations)이라 정의 내렸다.

삶의 질의 개념은 측정지표에 따라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삶의 질을 주관적 지표 측면에서 살펴보면, 삶의 질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삶의 질은 특정 지역이 주는 환경과 이를 인지하는 개인의 욕구와 기대가 결합되어 평가되어 진다(김순호, 2012).

Lehman(1983)은 주관적 삶의 질을 생활환경(living situation), 가족관계(family),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여가활동(leisure), 직업(work), 안전(safety), 재정(finance), 건강(health) 등 8개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반면 객관적 지표 측면에서 볼 때의 삶의 질은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조건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지역경제적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 환경적 측면, 생활편익적 측면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의 차이를 측정한 것으로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외적인 기준에 따라 각종 사회경제지표에 의해 결정이 된다(하혜수, 1996).

이처럼 심리학, 사회학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좋은 삶(good life)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병섭 외, 2015).

오늘날의 삶의 질에 대한 강조는 경제적인 소득, 물질적 부의 축적에 비해 정신 건강을 경시하던 과거에 비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 주5일 근무 등의 환경이 조성되며 삶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시되며 더욱 부각되었다(홍병선, 2012). 세계적으로도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조되는 시대는 가고 오늘날에는 창의성과 즐거움을 주는 창조적 성장(Creative Growth)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으며 문화가 행복, 성장, 국력인 시대이다(양현미, 2012).

2. 문화예술 복지의 개념

문화예술은 오랜 시대에 거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자나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먼저 문화(Culture)는 근대에 들어와서 예술(Arts)과 교양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디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 사육’이라는 뜻인 ‘cultura’에 어원을 두고 있다.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 또는 그에서 비롯되어 나온 산물’이며 ‘특정 인간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으로 그 뜻이 확대되어 인간의 고차원

적인 정신적 활동을 뜻하게 되었다(이홍재, 2005). 또한 문화는 개념의 특성에 따라 사회나 집단에서 공유되는 생활양식, 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 이해하는 문화산물(cultural products),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는 상징체계로서의 문화(culture as a signifying system)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임학순, 2003).

예술(Arts)도 본래는 기술, 솜씨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였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유럽에서 교양, 세련과 정신활동 또는 거기서 비롯된 활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홍재, 200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와 ‘예술’은 결합되어 ‘문화예술(Cultural Arts)’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현상에서는 아직도 예술정책을 문화정책의 하위영역의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임학순, 2003), 문화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삶의 질과 사회적 후생수준을 높여주는 정신적·물질적·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다(정보람, 2014). 우리 정부의 현 문화정책 역시도 그 대상을 “문화와 예술을 포함해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라 정의한다(정홍익 외, 2008).

본 연구 역시도 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문화예술’⁷⁾의 의미를 기초해 문화예술을 국민들의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는 활동으로 규정지으려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복지(Social Welfare)’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기반을 통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란 국민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participate)하고 문화를 향유(access to culture)해야 한다는 문화권

7) 현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4429호, 2016.12.20., 일부개정]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규정짓고 있고,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Cultural rights)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문화예술을 향유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문화복지’라는 개념은 경제적 성장의 바탕을 배경으로 1980년대 초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1981~1988년)때에 문화향유와 삶의 질을 강조한데에서 출발한다. 이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993~1998년)에서 1996년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목표로 문화복지를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으로 문자화(文字化)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김세훈 외, 2008).

이처럼 비교적 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연혁과 체계로 인해 문화복지의 개념정의는 다소 포괄적이기도 하고 정책이나 연구주체에 따라 관점이 상이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복지를 독자적 영역으로 보며 사회복지계에서는 문화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해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으로 보기도 한다(김세훈 외, 2008).

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문화복지는 문화적, 정신적인 욕구충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관련된 사회복지와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3. 문화(예술)복지 정책의 변화

대한민국에서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1981-1988년)때에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자 문화정책을 복지정책에서 다루면서부터이다.

8) ‘문화권(Cultural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UNESCO)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27조 1항에 명시되었으며 내용은 이와 같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1988년 출범한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1993년)때에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제5공화국의 문화복지 정책의 이념과 사업을 계승했기에 발전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문화복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문화향수의 확대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지역문화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정홍익 외, 2008).

이후의 정부를 거치며 문화복지 정책은 점차 발전 및 확대 되었는데 본격적으로는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993-1998년)에서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문화복지 달성을 위해 문화복지 기획단 설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다방면의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전국 각지의 기초 생활권(읍 면 동 단위)에 설립된 문화의 집⁹⁾은 지역별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여 미래 지향적인 문화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증가시켰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998-2003년)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칭하며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목표로 문화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불러일으켜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사상 최초로 문화관련 예산비율이 1%를 달성하며 문화적 권리, 문화향유 확대를 강조했다(이윤경, 2015).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년)에서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가 문화복지의 핵심 영역이 되며 주된 문화복지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피교육자의 예술 감수성 증진을 불러오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 점이다(김세훈 외, 2008).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9) 1996년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조성한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향유 수요기반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조성된 읍면동 단위의 문화공동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2008년 3월 6일 신설하였다. 이전의 참여정부가 분배 지향적 문화의 민주화를 강조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능동적 복지의 3대 축으로 일, 교육, 여가를 설정하고 여가의 내용을 문화복지정책과 연결시키고 있다(서보람, 2011). 대표적인 문화복지정책 으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국민 공감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복지제도’ 미관매 공연티켓을 통합해 할인제도를 도입 한 것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3월10일)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축(2013년 7월)하며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토대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주요 문화복지 정책의 성과로는 문화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지역문화진흥법¹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예술인 복지법, 문화기본법¹¹⁾ 등을 개정한 것이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확산, 생활문화센터 증설(2014년부터 현재까지 105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증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확대해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현재)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책의 위상을 되찾고, “문화·체육·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생활 속 문화 기회 확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통해 언제

10)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 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2014. 1. 28. 공포, 법 시행령 2014. 7. 22. 국무회의 통과)을 말한다.

11) 「문화기본법」(2013. 12. 31. 공포, 법 시행령 2014. 3. 18. 국무회의 통과)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또한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문화융성을 불러일으키고자 개정되었다.

어디서나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1] 정부별 문화(예술)복지 정책

정부	시기	문화정책 담당 행정부처	문화정책 비전	문화복지정책 목표	주요성과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	1981- 1988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문화향수 강조 • 지방문화 시설 확충
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	1988- 1993	문화부 (문화부 공식출범 :1990.1.3.)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문화복지국가 실현을 통한 국민문화향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출범 •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수립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 1998	문화체육부 (문화부와 체육청소년 부 통합 :1993.3.6.)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 기획단 구성 및 문화복지 중장기실천 계획 수립 • 문화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의 집 설립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 2003	문화관광부 (1998.2.28.)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 실현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산 1% 시대 실현 •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 (공공문화 기반시설 확대건설, 문화의 집 확충)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 2008	문화관광부	문화의 민주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취약 계층 문화향수 기회증대 (문화 바우처사업, 문화 순회사업) • 문화예술 교육 강화

이명박 정부	2008- 2013	문화체육관 광부 (2008.3.6.)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	능동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공감 문화예술 프로젝트 시행 (지역·소득 에 관계없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 미관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 도입
박근혜 정부	2013- 2017. 3.10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융성 을 통한 국민행복 ·창조경 제 실현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 법 제정 •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생활문화 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문화향유 지원 • 예술인 복지지원 강화 •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
문재인 정부	2017. 5.10.-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누리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확대 • 문화기반 시설 수 증가 •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 상향 • 찾아가는 공연, 작은 미술관 등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예술과 삶의 질

문화예술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예술 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문화예술 활동을 여가로서 확장시킨 연구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화예술과 삶의 질 또는 행복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문화예술의 향유 또는 참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순(2013)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문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는 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증가나 경기안정은 평균보다 낮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결과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결과와는 다르게 전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미경·윤동열(2013)은 문화예술 참여가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울산지역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참여도가 높아지고 심리적 안녕감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통해 문화향유를 늘리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국내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허정임(2010)은 문화적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비교실험을 실시해 문화예술의 경험이 미래의 삶에 대한 행복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고취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은영(2011)은 문화예술교육이 저소득층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아

동들은 발표력과 자신감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관계망 형성능력이 생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현묵(2008)은 문화예술교육이 문화 복지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석기법을 활용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평균 3.68로, 그렇지 않은 사람 평점 3.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은 소득, 학력, 직업에 의한 영향력 보다 크다고 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 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국내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홍윤미 외(2015)는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경제력, 문화자본, 지역적 특성이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제환(2012)은 문화소비자본과 문화예술수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화상품의 가격, 문화상품 대체재의 가격과 소득 등이 문화예술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허식·윤수영(2013)은 문화자본, 문화서비스의 가격, 교육수준이 문화소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수현 외(2013)는 문화예술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소득, 교육수준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성별, 연령과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가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에 학력과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소비가 매우 적어 문화예술향유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철현·황소하(2007)은 공연예술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향수의 영향요인을 설문조사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개인적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문화예술 경험, 관람 편익으로 환경적 변수는 가족 및 준거집단, 장소요인, 물리적 환경(장소접근성)으로 설정하여 분

석한 결과, 문화예술 향수에 학력, 부모님의 문화예술 관람정도, 성년기 예술교육정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 간 격차의 상쇄를 위해 예술교육의 강화 및 특히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향수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문화예술 활동을 여가의 범주로까지 확장시켜 살펴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명우 외(2016)는 여가활동이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2012년도 여가 활동실태조사를 이용해 매개회귀분석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 참여, 문화예술 참여와 같이 적극적인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관람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 활동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소영(2010)은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서 여가에 대한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행복한 생활은 여가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전문적인 경험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공유하고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예술 참여, 여가에 대한 만족도 뿐 만 아니라 자유의지와 주관적 인식이라고 하였다.

김진동·허중욱(2012)은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소득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로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은 여가만족에 정(+)의 영향을 소득만족도는 여가만족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차동혁·옥선화(2014)는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은 모든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모든 청소년에게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

박태선 외(2015)는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시설 직원 수, 관람객 수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문화시설이 있었고 관람객수가 많다고 하였다.

김수정(2011)은 강남과 강북의 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강좌를 비교를 통해 서울시 문화격차를 연구한 결과,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경제자본이 많이 필요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2. 문화예술 복지정책과 삶의 질

김휘정(2013)은 문화복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복지사업 관련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혜영(2004)은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정책개발에 관한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문화정책에서 문화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여가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역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DB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혁 외(2010)은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역할에 관하여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취약계층은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에 참여시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고 대인

관계가 향상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적인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을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정(2012)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적연구를 하였다. 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질 평균 값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일회성의 문제로 인해 참여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수미(2014)는 삶의 질 향상에 문화예술 복지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시설이 건립 또는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 지방자치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3박자가 조화가 될 때 문화예술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쌍웅(2013)은 노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기관의 접근용이성이 중요하며 정부정책과 일선 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김은아(2015)는 소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높아짐에 따라 소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와 관련해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나 문화예술 교육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여부 등을 다룬 문헌조사나 설문조사, 질적연구 등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 5대 권역의 패널자료를 구성해 계량경제모형인 패널분석으로 실증분석 함에 차별성이 있다. 즉,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 인구구조변화를 통제변수로 설정해 문화예술의 향유(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시·공간적 범위를 단기 특정기간과 특정지역으로 한정해 연구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 5대 권역으로 미시적으로 나누고, 시간적 범위를 2005년부터 2015년으로 10년 이상 설정하여 분석해 이를 통해서 지역별로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차별점이 있다. 또한 각 변수별 영향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독립변수를 자료 구득 가능 범위 내에서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설정함에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대리변수로 시민행복지수를 설정하였고, 통제변수인 소득과 인구구조변화의 대리변수로는 각각 지방세징수액과 유소년부양비를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는 문화예술을 향유(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문화예술 향유(수요)를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으로 설정하였고, 문화예술 공급은 문화공간 공연장 수,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수, 문화예술 지원현황으로 설정하였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도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 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수요) 또는 참여, 문화예술 공급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각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만을 분석하였고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학적 요인, 문화예술의 향유(수요)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을 모두 변수에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간단위는 미시적으로 세분화해 서울시 5대권역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되,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먼저 문화예술 향유(수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가설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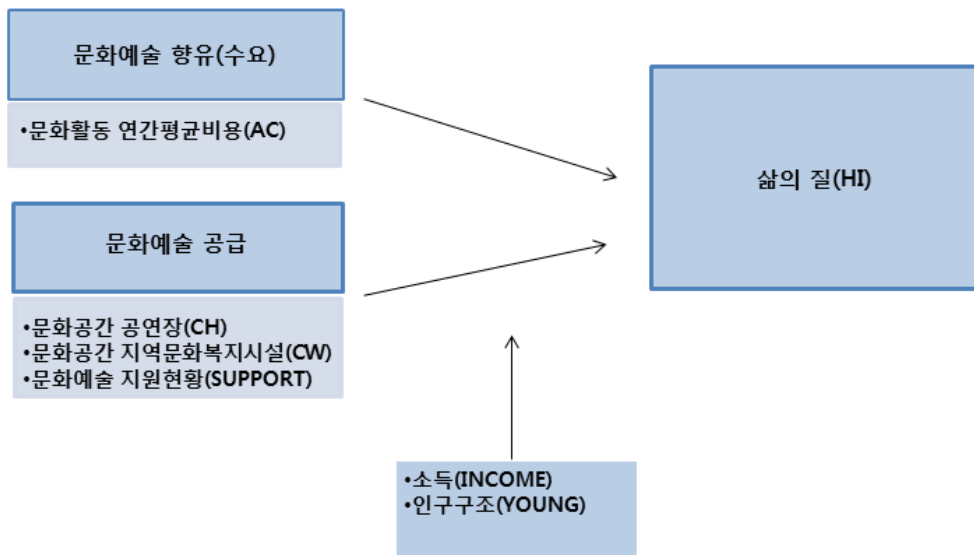
연구가설 1: 문화예술 향유(수요)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문화예술 공급의 차이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2: 문화예술 공급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이다.

이 같은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를 종합한 모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제 2 절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서울시 5대 권역 패널자료를 구성해 패널분석으로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의 [표2] 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로 시민행복지수(HI)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득의 대리변수인 지방세징수액(INCOME)과, 인구구조적 특성을 대리하는 변수인 유소년부양비(YOUNG)¹²⁾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독립변수는 문화예술 향유(수요)와 공급으로 설정해 문화예술 향유(수요)의 대리변수로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을, 문화예술 공급의 대리변수로는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을 설정하였다.

[표2] 변수

구 분	변 수 명		단위	비고	출처
종속변수	삶의 질		시민행복지수(HI)	0-10	패널
독립변수	통제 변수	소득	지방세징수액(INCOME)	백만원	패널
		인구구조	유소년부양비(YOUNG)	%	패널
	문화예술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원	패널
			문화공간 공연장(CH)	개소	패널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개소	패널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	천원	시계열

문화예술 향유(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변수로 문화공간 공연장(CH)과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을 선택한 이유는, 문화공간 영화관, 문화공간 전시시설, 문화공간 문화보급전수시설, 인구 10만 명 당 공연 횟수와 같은 통계자료들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의 시간적 길이와 서울시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자료가 제공되는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12) 유소년 부양비(YOUNG)=(0세~14세 인구/15~64세 인구) * 100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구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로 구성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미시적 공간단위에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5대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설정한 이유는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련 통계자료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행복지수(HI), 지방세징수액(INCOME), 유소년부양비(YOUNG),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패널자료이며,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은 시계열자료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징수액, 문화예술 지원현황,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은 로그 변환을 통해 분산안정화 하였다.

모든 변수는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에서 자료를 구득하였다.

제 3 절 변수 및 분석방법

1. 종속변수: 삶의 질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Lehman, 1983; 하혜수, 1996; 김순호, 2012; 김병섭,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 지표(삶의 질 지수)가 쓰인 연혁은 2011년 외부 공동연구를 통한 ‘삶의 질’ 기본틀(framework) 및 지표체계 개발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2015년까지 지표측정의 검토·보완을 거쳐 현재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된다.¹³⁾

이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까지는 높이지 못한다는 데에서 인식한 것으로, 이전의 시민행복지수(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 자료 공시)와 다른 점은 재정부분의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GDP로 대표되는 경제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Better Life Index)’도 행복이라는 궁극의 개념보다는 행복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삶의 질을 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 이상의 실증적 자료와 통계를 통한 결론을 산출하고 나아가 삶의 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삶의 질과 관련한 문화예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삶의 질의 대리변수로 해당 기간에 공시된 시민행복지수(HI)를 설정하였다. 단, 경제적 부분의 통제는 소득(지방세징수액)으로 주목해서 보았다. 시민행복지수는 서울시민의 주관적인 행복정도로, 건강상태·재정상태·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가정생활·문화·사회생활의 만족지수를 0-10으로 산출한다.

2. 독립변수: 문화예술 향유(수요)와 공급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예술을 경제학의 기본구성인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향유(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비행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출액인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을 문화예술 향유(수요)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13)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 [2017년 11월 27일 접속]

[표3]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구성내역 (서울통계)

2005	미술 전시회/ 미술관	공연장	콘서트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관람			
2006	전통 문화공간/ 전통공연	미술 전시회/ 미술관	공연장	콘서트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		
2007	전통 문화공간/ 전통공연	미술 전시회/ 미술관	공연장	콘서트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		
2008	전통 문화공간/ 전통공연	박물관	미술 전시회/ 미술관	공연장	콘서트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	
2009	전통 문화공간/ 전통공연	박물관	미술 전시회/ 미술관	공연장	콘서트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	
2010	전통 문화공간/ 전통공연	박물관	미술 전시회/ 미술관	공연장	콘서트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	
2011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전통예술 공연관람	연극공연 관람	극장 에서 영화 관람	대중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2012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전통예술 공연관람	연극공연 관람	극장 에서 영화 관람	대중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2013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전통예술 공연관람	연극공연 관람	극장 에서 영화 관람	대중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2014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전통예술 공연관람	연극공연 관람	극장 에서 영화 관람	대중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2015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전통예술 공연관람	연극공연 관람	극장 에서 영화 관람	대중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총 합산금액을 이용함

다음으로 이러한 문화예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요인은 지역적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성제환, 2003; 정광호·최병구, 2006; 허지정·최막중, 2009; 배태영, 2010)와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문화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인 접근성이 10.8%인 점이라는 연구에 기초하여, 문화예술 공급의 대리변수로는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을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사회경제학적 변수(소득, 인구구조변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Roback, 1982; Hagerty & Veenhoven, 2003; Veenhoven, 2004, Tang, 2007; 김병섭 외, 2015; 이명우 외, 2015)에서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사회경제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하였다.

통제변수로 쓰인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의 대리변수는 GDP나 GRDP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초단체별로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5대 권역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양광식 외(2011)를 참조하여 소득의 대리변수를 지방세징수액(INCOME)으로 설정하였다.

인구구조변화의 대리변수로는 유소년부양비(YOUNG)를 설정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2030년 경 초고령국가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부의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¹⁴⁾

14)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4년 8월 6일 발간한 ‘인구 고령화가 향후 20년간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국 역시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을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기간의 시계열적 특성과 분석대상의 횡단면적 특성을 결합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로 시민행복지수(HI)를 사용하였으며, 지방세징수액(INCOME)은 소득, 유소년부양비(YOUNG)는 인구구조 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화예술 수준(수요와 공급)을 측정하는 독립변수로는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을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자료구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로 구성하였다. 시민행복지수(HI), 지방세징수액(INCOME), 유소년부양비(YOUNG),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패널자료이며,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은 시계열자료로 구성되었고, 지방세징수액, 문화예술지원현황,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은 로그변환을 통해 분산안정화 하였다.

문화예술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향유(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 5대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으로 나누어 정량적, 정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Stata 15.0을 활용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자료설명

서울시 권역별 변수들과 서울시 전체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4]과 같다.

먼저,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면 시민행복지수(HI)는 평균(Mean) 6.62, 지방세징수액(INCOME)은 평균 467120.10백만원, 유소년부양비(YOUNG)는 평균 17.99%로 나타났고,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은 평균 274414.10원, 문화공간 공연장(CH)은 평균 9.71개,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평균 9.86개,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은 평균 9440425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권역별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시민행복지수(HI)를 보면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도심권, 동북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세징수액(INCOME)은 동남권,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소년부양비(YOUNG)는 동남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도심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변수들을 보면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은 동남권이 평균 295968.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공간 공연장(CH)은 도심권이 평균 40.6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남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을 보면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 지역별 기술통계량

지역별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d.Dev.)						
구분	서울시 전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관측치 (Obs)	275	88	88	33	44	77
시민행복지수 (HI)	6.62	6.56	6.51	6.64	6.78	6.66
	0.32	0.24	0.28	0.27	0.36	0.35
지방세징수액 (INCOME)	467120. 10	691800. 20	237760. 20	294828. 20	1048885. 00	374356. 20
	414157. 70	285413. 50	58489. 95	112757. 60	648408. 70	191227. 90
유소년부양비 (YOUNG)	17.99	16.02	18.32	18.49	18.81	17.79
	2.70	2.28	2.81	2.18	1.69	3.00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AC)	274414. 10	261675. 30	275446. 20	275195. 50	295868. 70	266099. 50
	57128. 44	59278. 47	50062. 95	80990. 14	54553. 51	50631. 62
문화공간 공연장 (CH)	9.71	40.61	3.73	6.36	13.48	2.58
	19.70	43.13	3.58	8.46	9.05	2.18
문화공간 지역문화 복지시설 (CW)	9.86	7.79	9.60	7.76	10.25	11.71
	3.33	2.27	2.37	1.79	2.99	4.18
문화예술 지원현황 (SUPPORT)	9440425. 00	9440425. 00	9440425. 00	9440425. 00	9440425. 00	9440425. 00
	4311274. 00	4370152. 00	4328090. 00	4370152. 00	4353180. 00	4331648. 00

2. 종속변수(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5]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인 시민행복지수(HI)는 지방세징수액(INCOME),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청소년부양비(YOUNG)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지방세징수액(INCOME),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이 높을수록 시민행복지수(HI)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청소년부양비(YOUNG)는 높을수록 시민행복지수(HI)가 오히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5] 상관관계

구분	시 민 행 복 지 수 (HI)	지방세 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유소년 부양비 (YOUNG)	문화공간 공연장 (CH)	문화공간 지역문화 복지시설 (CW)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문화활동 연간평균 비용 (lnAC) *로그 변환함
시민행복지수 (HI)	1.000	-	-	-	-	-	-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304 ***	1.000	-	-	-	-	-
유소년부양비 (YOUNG)	-0.36 0***	-0.227* **	1.000	-	-	-	-
문화공간 공연장 (CH)	0.069	0.431** *	-0.293* **	1.000	-	-	-
문화공간 지역문화 복지시설 (CW)	0.029	0.162** *	0.207** *	-0.127**	1.000	-	-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254 ***	0.142**	-0.431* **	0.061	0.017	1.000	-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0.501 ***	0.194** *	-0.478* **	0.093	0.005	-0.046	1.000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분석방법의 선택을 위하여 Hausman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표6]의 결과로 서울시 전체 자료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권역별(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자료에서는 모두 확률(random effect)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Hausman검정통계량

구분	X2	p
서울시	15.420**	0.017
도심권	0.040	1.000
동남권	7.620	0.268
동북권	7.860	0.249
서남권	1.130	0.980
서북권	6.220	0.399

*<0.1, **<0.05, ***<0.01

제 2 절 패널분석

1. 지역별 분석결과

(1) 서울시 전체 분석결과

서울시 전체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7]의 결과처럼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은 시민행복지수(HI)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대리변수로 쓰인 통제변수인 지방세징수액(lnINCOME) 역시도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리하는 유소

년부양비(YOUNG)의 경우 시민행복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서울시 전체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td. Error)	p값 (p value)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409**	0.181	0.024
유소년부양비 (YOUNG)	-0.034**	0.016	0.030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0.341**	0.136	0.013
문화공간 공연장 (CH)	0.000	0.002	0.996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CW)	-0.023	0.013	0.088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020	0.055	0.713
(상수항)	-8.362	7.165	0.243
R제곱	0.468		

*<0.1, **<0.05, ***<0.01

(2) 도심권 분석결과

먼저 서울시를 5개 권역 별로 구분한 자료 중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 산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8]에서 보듯 문화활동 연간평균 비용(lnAC)은 시민행복지수(HI)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시민행복지수(HI)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 도심권의 경우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이 높을수록 지역주민 삶의 질이 높은 반면,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많을수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8] 도심권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td. Error)	p값 (p value)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502	0.311	0.106
유소년부양비 (YOUNG)	0.029	0.045	0.524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0.452**	0.231	0.050
문화공간 공연장 (CH)	0.000	0.001	0.788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CW)	-0.108**	0.042	0.011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186	0.116	0.108
(상수항)	-8.362	7.165	0.243
R제곱	0.468		

*<0.1, **<0.05, ***<0.01

(3) 동북권 분석결과

다음으로 [표9] 동북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의 경우에는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 문화예술 지원현황(lnSUPPORT)은 시민행복지수(HI)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동북권인 경우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 문화예술 지원현황(lnSUPPORT)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HI)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9] 동북권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td. Error)	p값 (p value)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041	0.123	0.735
유소년부양비 (YOUNG)	0.032	0.019	0.098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1.165***	0.272	0.000
문화공간 공연장 (CH)	0.002	0.007	0.807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CW)	-0.005	0.014	0.748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217**	0.085	0.011
(상수항)	-12.587	4.083	0.002
R제곱	0.403		

*<0.1, **<0.05, ***<0.01

(4) 서북권 분석결과

반면에 아래 [표10] 서울시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변수와 통제변수인 지방세징수액(lnINCOME), 유소년부양비(YOUNG) 모두 지역주민의 삶의 질(HI)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서북권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td. Error)	p값 (p value)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146	0.350	0.677
유소년부양비 (YOUNG)	-0.027	0.043	0.536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0.421	0.329	0.201
문화공간 공연장 (CH)	0.006	0.012	0.588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CW)	0.009	0.040	0.818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058	0.170	0.734
(상수항)	2.670	5.672	0.638
R제곱	0.455		

*<0.1, **<0.05, ***<0.01

(5) 동남권 분석결과

다음으로 [표11]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경우 문화 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이 삶의 질(HI)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동남권인 경우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HI)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11] 동남권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td. Error)	p값 (p value)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461	0.340	0.176
유소년부양비 (YOUNG)	0.018	0.041	0.663
문화활동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0.685**	0.307	0.026
문화공간공연장 (CH)	0.041	0.021	0.056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CW)	-0.001	0.030	0.960
문화예술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242	0.130	0.064
(상수항)	-0.277	6.209	0.964
R제곱	0.301		

*<0.1, **<0.05, ***<0.01

(6) 서남권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아래 [표12] 서남권의 경우에도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은 삶의 질(HI)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서남권의 경우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이 높을수록 지역주민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12] 서남권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td. Error)	p값 (p value)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174	0.182	0.340
유소년부양비 (YOUNG)	-0.027	0.027	0.319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0.810***	0.280	0.004
문화공간 공연장 (CH)	-0.015	0.023	0.524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CW)	-0.006	0.015	0.709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188	0.102	0.065
(상수항)	-8.063	5.091	0.113
R제곱	0.498		

*<0.1, **<0.05, ***<0.01

2. 지역더미 분석결과

앞의 권역별 결과를 정리해보면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의 순서로 계수의 크기를 나열할 수 있다. 이에 지역별 비교를 위해 동북권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살펴보면 문화활동 연간 평균비용(lnAC)과 문화예술 지원현황(lnSUPPORT)은 삶의 질(HI)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동북권에 비해 서북권, 서남권이 (+)값을 가지며 삶의 질(H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더미변수 모형 (기준=동북권)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td. Error)	p값 (p value)
지방세징수액 (lnINCOME) *로그 변환함	0.069	0.043	0.111
유소년부양비 (YOUNG)	0.003	0.009	0.712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lnAC) *로그 변환함	0.782***	0.101	0.000
문화공간 공연장 (CH)	0.000	0.001	0.695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CW)	-0.006	0.006	0.315
문화예술 지원현황 (lnSUPPORT) *로그 변환함	0.191***	0.042	0.000

도심권	0.036	0.076	0.633
서북권	0.129**	0.054	0.017
동남권	0.124	0.073	0.091
서남권	0.168***	0.044	0.000
(상수항)	-7.178	1.828	0.000
R제곱	0.404		

*<0.1, **<0.05, ***<0.01

제 3 절 분석결과 종합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인 시민행복지수(HI)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세징수액(INCOME),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 문화예술 지원현황(lnSUPPORT)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를 대리하는 유소년부양비(YOUNG)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으로 대표되는 5대 권역별 결과를 요약해보면 서북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HI)에

문화예술 향유(수요)를 대표하는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동북권의 경우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lnAC)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H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예술 공급을 대표하는 문화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의 경우 모두 유의미하지 않거나 심지어 도심권의 경우에는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의 경우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예술 지원현황(lnSUPPORT)의 경우에는 서울시전체와 동북권을 비교했을 때에는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서 [표14] 분석결과 종합 및 [표15] 가설의 지지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4] 분석결과 종합

		서울시 전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더미 (기준= 동북권)
향 유 요 인	x1	0.341**	0.452**	1.165***	-	0.685**	0.810***	7.730***
	x2	-	-	-	-	0.041*	-	-
	x3	-	-0.018**	-	-	-	-	-
	x4	-	-	0.217**	-	-	-	0.191***

x1=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x2=문화공간 공연장(CH)

x3=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x4=문화예술 지원현황(SUPPORT)

[표15] 가설의 지지여부

			삶의 질	
연구가설 1	문화예술 향유(수요)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	도심권	(+)
			동북권	(+)
			서북권	
			동남권	(+)
			서남권	(+)
			서울시 전체	(+)
연구가설 2	문화예술 공급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이다.	문화공간 공연장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울시 전체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심권	(-)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울시 전체	
		문화예술 지원현황	도심권	
			동북권	(+)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울시 전체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삶의 만족도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꾸준한 관심사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통계가 집계된 31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OECD 평균은 지난해 6.5점에서 7.3점으로 오히려 올라갔다는 것이다.¹⁵⁾ 꾸준한 경제성장과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괴리감이 있는 수치라 아니 말할 수 없다.

다수의 기관 조사 발표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로는 문화활동 참여여부 내지는 문화관심집단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일반 시민집단보다 문화참여관람 횟수와 이에 따른 연간 지불금액이 높음은 물론 삶의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물론 역대정부의 문화정책 비전과 문화복지 정책의 목표 역시도 국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확대와 복지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행연구나 조사는 대부분 문화예술의 향유 또는 참여,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 설문조사나, 문화예술 복지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밝히는 질적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공간적 범위가 특정기간이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소득이나 인구구조와

15) 경향신문. 2017.11.15. “한국인 32%만 난 건강해. OECD 꼴찌…삶의 만족도도 최하”.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이 문화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는 알 수 있었으나 이것의 지역별 차이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학적 요인, 문화예술의 향유(수요)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 요인 모두를 변수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해 문화예술 향유(수요)와 공급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시·공간적 범위를 2005년부터 2015년으로 10년 이상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도 서울시를 5대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누어 특정한 단시간이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각 변수별 영향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문화예술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나아가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1에서는 문화예술 향유(수요)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이를 서울시 5대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초구),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로 나누어 사회경제학적 변수인 소득(지방세징수액)과 인구구조(유소년부양비)를 통제하여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서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을 포함하여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는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문화예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적 요인이며 문화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은 접근성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별 문화예술 공급의 차이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문화예술 공급을 문화공간 공연장,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예술 지원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공간 공연장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도심권의 경우 오히려 (-)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지원현황에서는 동북권과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동북권을 포함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문화예술 지원이 클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문화복지 정책 방향 측면, 그리고 둘째로 현장에서 문화예술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예술 향유(수요)는 서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 및 서울시 전체에서도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가 클수록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향유에서 기인한 나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하다.

역대에 거친 정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그리고 소득 및 연령 등에 기인한 장벽은 존재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심지어 향유(수요)자체 여부가 미비한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문화예술 향수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되, 기존의 문화관심집단 보다는 아직 문화예술을 참여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은 문화 무관심집단의 비율을 낮추고 맞춤형 문화예술정책으로 접근하는 등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은 정량적이고 실증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지역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일관성 있고 방향성 있는 정책수립, 나아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각 지역이 나서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통한 수요자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권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무관심집단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수요(향수)의 노출기회를 넓혀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장·단기적인 관심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화예술 공급을 대표하는 문화공간 공연장,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이 (-)영향을 미친 것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 지원현황의 경우에만 동북권과 서울시 전체에서 문화예술 지원이 클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화공간 공연장과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사실 문화예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지역적 요인 즉, 문화행사 참여시 중요한 기준은 접근성이라는 기존의 연구와는 동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교통 발달과 더불어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대부분의 중·소·대형 문화공간 공연장이 도심권이나 동남권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¹⁶⁾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주요목표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눈여겨볼만 한 것 중에 하나가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문화기반 시설 수 증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오히려 새로운 문화센터 건립이나 문화기반 시설 수를 증가시키는 등 새로운 시설을 보다 많이 양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힘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존의 공간을 보완

16) 문화공간 공연장 수 기술통계량 평균: 도심권(40.61) > 동남권(13.48) > 서북권(6.36) > 동북권(3.73) > 서남권(2.58)

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현존하는 공간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심권과 동남권의 공연장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소외된 지역에 집중하고 각 권역별 공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요계층의 관람편익과 소비욕구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문화수요계층의 참여를 능동적으로 증가시켜야만 한다.

더불어 현장의 문화예술 전문가들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미 포화가 된 문화공간에 편중되기 보다는 각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문화소외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공간과는 달리 문화예술 지원현황의 경우 지역더미의 기준이 되었던 동북권과 서울시 전체에서 (+)의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지난 10 여 년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은 물론,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저소득층 국민 문화향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첫 번째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보다 정당화하는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저소득층의 국민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구 문화바우처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인상이라는 경제성에 초점을 둔 계획보다는 타의적 문화소외계층에게 까지도 이러한 정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가시적인 목표나 결과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장의 문화예술가들을 끌어들여 이들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예술 공급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고 나아가 수요자의 삶의 질까지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문화예술 수요와 공급의 요인 모두를 변수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정적인 집단이나 단시간을 가지고 주관적인 기준 하에 정성적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15년으로 10년 이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시를 5대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누어 각 변수별 영향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도 있었다.

앞서 연구설계 자료 및 분석대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련 통계자료가 잘 구성되어 있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 영화관, 문화공간 전시시설, 문화공간 문화보급전수시설, 인구 10만 명 당 공연 횟수와 같은 통계자료들 같은 경우 일정기간의 시간적 길이만큼이나 지역적 단위의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문화공간 공연장과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은 공간 활용률이 아닌 개소단위를 측정한 것이기에 각 권역별 문화공간의 실제 활용률을 반영한 데이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후속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수요(향유)층에 대한 분석 또한 연간평균액만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무료입장 내지는 관람은 고려하지 않았고, 가격 차이에 따른 관람횟수 등은 활용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개인수준의 자료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지역 수준의 자료를 활용 한 만큼 다양한 개인적 특성은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남상문 (2011), 『문화예술정책과 복지』, 도서출판 선인
- 이흥재 (2005), 『문화예술 정책론』, 박영사
- 이흥재 (2006), 『문화정책』, 논형
-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 정홍익, 이종열, 박광국, & 주효진(2007). 『문화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 Veenhoven, R. (2004). Happiness as an aim in public policy: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논문 및 학위논문>

- 고민정, & 최희수. (2017).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61-262.
- 구혜영. (2004).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4, 249-281.
- 김경식, & 이루지. (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434-433.
- 김병섭, 강혜진, & 김현정. (2015).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29-56.
- 김세훈. (2011). 알기 쉽게 이해하는 문화복지. 아르케
- 김수정. (2011). 문화강좌를 통해 본 서울시 문화격차 : 강남과 강북의 문화강좌 비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윤기웅, & 홍윤미. (2013).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수요와 공급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 김순호. (2012). 연령별 가중치분석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왕동, 송위진, & 성지은. (2013).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기술혁신학회지, 16(3):672-693.
- 김은아. (2015). 소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4:89-112.
- 김은영. (201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19:5-31.
- 김은정. (2012).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동, & 허중욱. (2012).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6(3):361-374.
- 김태순. (2013). 자치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휘정. (2013). 문화복지 정책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발전 방향. 예술경영연구 26:35-63.
- 문제도. (2010). 문화예술 지방행정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태선, 이미영, & 한우석. (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503, 1-8.
- 배태영. (2010). 상대적 문화지수 측정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4(3), 217-239.
- 서보람, 장하림, & 현택수. (2011). 문화복지정책 발달사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호, 29(12), 95-124.
- 성제환. (2003). 문화· 예술상품 소비결정요인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문화· 예술상품의 체험재적 특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10, 87-113.

신수미. (201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이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예원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광식, 김성연, & 서원석. (2011).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관계 분석. 국토계획, 46(5), 31-42.

양현미. (2012). [주제발표 2] 창조경제 시대의 문화정책.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7-49.

양혜원. (2012).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단일호), 1-20.

윤소영. (2010).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서 여가경험에 대한 접근. 여가학연구, 8:45-60.

윤쌍웅. (201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예술경영연구, 25, 165-203.

이명우, & 윤기웅. (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0.2: 264-287.

이명우, 윤기웅, & 홍윤미. (2015).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7(1):185-212.

이영빈, & 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이윤경. (2015). 전통예술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방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규혁, 정환호, 이해영, 정정희, 강은주, & 한주희. (2010). 공연예술 관람객의 감성지능이 관람동기와 만족도,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뮤지컬과 클래식 관람객을 대상으로. 여가학연구, 8, 105-125.

이진면, & 최용재. (2011). 가계의 문화서비스수요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4(1), 203-217.

임학순. (2010). 예술과 문화기술 (CT) 의 연계를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예술경영연구, 16:57-76.

정광호·최병구. (2006).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지방정부연구, 10(4):63-89.

정보람. (201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문화정책논총, 28(2), 4-24.

정보람, & 전인수. (2017).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1), 30-51.

정지영. (2007). 지역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11), 243-250

정철현, & 황소하. (2007). 문화예술향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연예술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주재현. (2004). 기획논문: 사회복지와 문화-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문화이론적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279-297.

차동혁, & 옥선화. (2014).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1), 353-378.

최상미, 전재현, & 정무성. (2015).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서울도시연구, 16(4), 177-194.

최용환. (2013). 정부형태별 거버넌스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동적패널을 활용한 다국가 실증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종혁, 이연, 유영주, & 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한국사회복지학, 62(1):291-316.

최현목. (2008).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복지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미경, & 윤동열. (2013).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및 개방성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0(5):157-177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허식, & 윤수영. (2013). 가구의 문화서비스 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3.

허지정, & 최막중. (2009).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계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4(6), 161-169.

허정임, 오금환, & 박정환. (2010). 미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27:185-203.

홍병선. (2012).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교양논총, 7:6-34.

홍윤미, 이명우, & 윤기웅. (2015).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7(1), 185-211.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1359-1386.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Lehman, A. F. (1983). The well-being of chronic mental patients: Assessing their quality of lif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4), 369-373.

Roback, J. (1982). Wages, rents,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6), 1257-1278.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4), 475-492.

Tang, T. L. P. (2007). Income and quality of life: Does the love of money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72(4), 375-393.

<보고서 및 자료집>

김세훈, & 조현성.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재수, 김선웅, & 송희숙. (2011).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입지실태와 공급방식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226.

양혜원. (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조현성, & 김가진. (2011).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예술정책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2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12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2017.7.4.

정책브리핑. 『2018년 문체부 예산 편성 현황』. 2017.8.29.

<웹사이트>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신문기사>

경향신문. 2017.11.15. “한국인 32%만 난 건강해. OECD 꼴찌…삶의
만족도도 최하”

헤럴드경제. 2017.9.8. “13년째 OECD국가중 ‘자살률 1위’ 부끄러운 오
명

한국경제. 2017.9.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연 7만원으

로.”

아시아경제. 2017.7.4. “문화에 관심 있으면 ‘삶의 만족도 더 높다.’”

조선일보. 2016.12.27. “YOLO 한 번뿐인 삶이니까…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한국일보. 2014.8.7. “무디스 ‘한국 2030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Abstract

Effects of Cultural Arts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 Focused on the Five Major Regions in Seoul -

Bae, Inky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life and efforts to improve it has been increased compared with the past, where economic growth is emphasized. The current government, as well as the cultural policy vis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the goal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also focus on realizing the happiness of the people by rais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expansion of culture and welfare realization that everyone can enjoy.

This study examines on the cultural arts and its influence to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discussed only about the positive influences on participation of cultural arts program in limited period or places,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arts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focuses on the factor of demand and supply and the social economic factors including income and the change of demographic structure are also controlled to analyze it quantitatively.

Time range covers more than ten years from 2005 to 2015, and divided the places into the five major regions of Seoul. By empirically showing how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varie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 each region. the study also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the theory of quality of life, the theory of cultural arts welfare policy and the changes and then examines it with the way of panel analysis that the aspect of demand which is measured by annual cost for cultural arts events and the aspect of supply which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cultural arts centers and cultural welfare facilities and also cultural supports from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mand of cultural arts affects the quality of life throughout the Seoul city including all regions except the northwest. In the case of supply of the cultural arts, cultural arts centers and cultural welfare facilities did no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however, cultural supports give positive influence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local residents in the northeast region and Seoul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due to cultural arts is emphasized, but it suggests that differentiated policies are needed to increase demand of cultural arts in each region. In addition, in order to enhance cultural arts through regional factors of supply and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and systematically supplement the existing space rather than construct new facilities, further activate the

utilization of local spaces.

Keywords : Cultural Arts, Quality of Life, Cultural Welfare Policy, Cultural Policy, Five major regions

Student Number : 2015-24358